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화두… ‘마음자리 찾는 길’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제 16교구 본사 고운사 조실로 영주 부석사에 주석 중인 근일 스님이 30년간 사부대중에게 설한 수많은 법문 가운데 11편을 골라 엮은 첫 법어집이다. 경봉 · 향곡 · 전강 · 구산 · 성철 스님 등 한국불교의 대표 선지식들에게 직접 참선지도를 받은 근일 스님은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히 수행하라”는 용맹정진의 가르침으로 오랫동안 대중을 이끌어왔다. 무상과 무욕의 길을 몸소 실천해온 스님이 일생의 수행으로 깨친 환한 지혜가 이 법어집에 온전히 담겨 있다.

〈무량수전 사자후〉서 스님은 생사해탈을 위한 마음자리 찾기와 수행의 중요성, 실제적인 참선 방법 등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 시대의 조주설(趙州說), 임제할(臨濟喝)로 일컬어지는 근일 스님의 법문을 접하면 왜 참선 수행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칠 수 있다. 그리고 아침저녁 잠깐이라도 바르게 앉아 자신을 고요히 하고 마음의 근본자리를 찾아가는 수행하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

1980년 경북 의성의 고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였으나 퇴락하고 낙후된 사찰이었다. 근일 스님은 세수 마흔 살에 본사 주지로 임명받아 난행과 고행을 거듭하며 대작불사를 이루어 고운사를 중창했다.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도 놀랄 만한 변화를 이뤄냈다. 스님은 철야 참선법회를 시작해 사부대중의 공부를 철저히 지도했다.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토요일마다 1박 2일간 사부대중이 더불어 참선하는 수행이었다. 당시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수행풍토였다. 안거 때도 고운사 스님들은 여느 사찰보다 열흘 먼저 시작해 하루 17~18시간씩 백일 동안 용맹정진 했다. 재가자들도 그렇게 매진하는 출가자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신심을 내어 정진에 동참했다.

철야 참선법회는 직장인들을 배려해 밤 9시에 시작됐다. 근일 스님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법문을 하고 나면 참가자들은 전각으로 흩어져 참선 했다. 수행 도중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근일 스님을 찾아가 질문하고, 스님은 하나하나 자세히 일러주었다. 새벽 세 시에 도량석과 새벽예불을 한 뒤 아침공양을 하면 공식적인 참선 법회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다음날까지 남아 개별적으로 기도와 수행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고운사는 개울을 12번 건너야 닿을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열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선법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극락전의 해운정사와 혜암 스님의 해인사 원당암 등이 대표적이다.



무량수전 사자후

근일 스님 지음/뜨란 펴냄/1만 5천원



조계종 원로의원 근일 스님이 참선을 하고 있는 모습.

저자, 아름다운 깨달음 선시 17편

“부처님 중도 진리 그대로 시에 담아”

참선공부에도 목표가 필요하다

근일 스님의 법문은 평범한 촌로부터 명성 높은 지식인까지 모두를 감동시켰다. 나이든 할머니들은 열흘 전에 부석사에 당도해 저마다 기도와 예불을 올리며 법회를 기다렸다. 어쩌다 경내에서 근일 스님을 만나면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고, 종종 소참법문이 열렸다.

전국의 수행단체와 사찰, 공공기관 등에서 초청이 쇄도했다. 스님은 여력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법문을 다녔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참선법회였기에 그 사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은 이들을 위해 녹음테이프가 배포되었다. 사람들은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반복해서 법문을 들었다. 명창 안숙선 선생도 그중 한 분이었다. 그는 우연히 선물받은 스님의 육성테이프를 열 번이나 듣고, 자비로 100개를 더 만들어 주위에 나눠주었다. 시간이 흘러 테이프는 시디로 바뀌었고, 나아가 음성법문 이외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법문집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빈번하게 들어왔다. 그러나 스님이 허락하지 않아 법문집 출판은 매번 미뤄졌다.

근일 스님은 1980년 처음 철야참선법회를 시작할 때 사부대중에게 30년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그 기간을 다 채우고 2010년에 스님은 오랜 세월 이어온 참선법회를 마감했다. 그리고 그동안 못다 한 개인의 수행에 더욱 정진하였다. 재가자들은 자발적으로 1박 2일 철야정진을 계속해가면서도 더 이상 법상에 오른 스님을 뵐 수 없게 된 것을 무척 아쉬워했다.

이제 스님은 1년에 단 두 번, 결제와 해제 때만 법상에 오른다. 근일 스님의 명법문을 들을 수 없게 된 출가자와 재가자들은 누군가 녹취를 풀어 인터넷에 게시한 법문을 읽거나 유튜브 등에 공유된 음성법문을 들으며 갈증을 달랬다. 불교TV에 올라온 수많은 법문 가운데 근일 스님의 법문 조회수는 30만 회가 넘는다. 보통 조회 수가 몇 천에서 많으면 몇 만임을 감안하면 스님의 명성이 어느 만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 근일 스님의 상좌모임인 봉황선회는 은사스님에게 꾸중 들을 각오를 하고 맏상좌 호성 스님(고운사 주지)을 필두로 법문집 출판을 감행했다. 큰스님의 감로법을 듣기 원하는 이들의 바람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좌스님들은 그동안 정성스럽게 모아둔 법문 테이프의 녹취를 풀고 정리하여 그중 11편을 우선 간추렸다. 근일 스님의 첫 법어집 〈무량수전 사자후〉는 이렇게 세상에 선보였다.

“佛法은 남녀, 노소, 빈부 등 차별 없는 공평무사한 가르침”



번뇌를 위한 자비는 없다

우 빤디따/케이트 흘러 엮음
윤승서 · 이승숙 번역

전 세계 위빠사나 명상의 위대한 스승

“해탈의 가능성을 품었기에 우리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야 말로 사람의 일생에서 지고의 가치를 지닌다”

‘위빠사나의 성자’ ‘위대한 성인’ ‘법(Dhamma)의 거인’ …. 우 빤디따 스님을 소개할 때 붙는 수식어들이다. 스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 명상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전하며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열정을 쏟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20세에 구족계를 받은 스님은 29세 나이로 미얀마불교의 고승(高僧) 마하시 사야도로부터 사띠빠타나 수행에 입문한 상수제자이다. 마하시 사야도의 입적 후 마하시 센터 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빤디따라마 센터를 열어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그 대표적 인물로 현대 서양 명상계의 유명 지도자 조셉 골드스타인, 잭 콘필드, 샤론 살즈버그 등을 들 수 있다. 혹자는 말한다. 스님의 등장으로 인해 서양에서의 위빠사나 명상 지도와 수행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이다. 국내의 경우 이들 서양 명상 지도자들의 위빠사나 수행 지침서나 연구물이 다수 소개된 상황에서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스님이 처음 서양 땅에 발디딜 당시 세랍 63세. 적지 않은 나이에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르침을 펴 온 스님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시대 최고의 명상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스님이 2003년 5월, 미국서 진행한 사띠빠타나 위빠사나 법문을 엮었다.

삶은 왜 고통스러운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번뇌(kilesa)’라고 말한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역시 번뇌이다. 우 빤디따 스님은 수행의 목표가 우리 삶의 고뇌와 고통의 모든 요소들, 즉 번뇌를 끊어 냄으로써 해탈(vimutti)을 이루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 내면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규정한다. 욕망, 미움, 어리석음 등의 내적 번뇌는 외적 번뇌의 원인이다. 결국 내적 번뇌로부터의 해방은 모든 번뇌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번뇌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잔인하고 사악한 지배자’인 번뇌는 결과적으로 삶의 모든 찰나서 일어나는 윤회의 순환을 만들고, 고통스런 삶을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윤회(輪廻)는 태어나고, 죽고, 존재하는 순환을 말한다. 윤회를 못 벗어나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뜻한다. 노화, 부패, 사망은 단지 삶이 끝났을 때만 겪는 것이 아니라 매 찰나마다 일어난다. 삶 자체가 고통이다. 스님은 어린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과정을 설명한다.

어린 나무는 몸 안서 일어나는 수액의 흐름에 의해 성장하고, 어느새 열매를 맺는다. 다 여문 열매는 땅에 떨어져 또 다른 싹을 틔운다. 여기서 나무 안 수액의 흐름은 곧 번뇌의 순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맺는 열매는 행위의 순환, 그리고 그 열매가 떨어져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것은 결과의 순환을 나타낸다. 이 비유서도 알 수 있듯이 윤회의 순환 과정 모두는 결국 번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인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중생의 번뇌 끊기에 대한 간절함은 스님의 신조서도 드러난다. “번뇌에게 베풀어 줄 자비는 없다” 이 책 제목인 이 명제를 통해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 모든 찰나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해탈은 특정 인물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해탈’을 특정 인물이나 이룰 수 있는 특수한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님은 이 책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해탈의 가능성을 품었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야 말로 사람의 일생에서 지고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불교서는 붓다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중생에 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의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는 불교의 여러 경전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 빤디따 스님 역시 해탈을 이루는 데는 그 어떤 차별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불법은 남녀, 노소, 빈부 등의 차별이 없는 완전히 공평무사(公平無私)한 가르침이다.

하지만 우 빤디따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이 해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한다.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해탈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오직 자기 스스로 앎과 실천의 길에 들어 나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번뇌를 물리치는 궁극의 수행법

스님은 해탈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사띠빠타나 위빠사나 수행’을 제시한다. 이는 몸과 감각, 마음과 모든 현상(사물)의 생멸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념처 수행을 근간으로 한 마음챙김 수행법이다. 스님은 사띠빠타나 위빠사나 명상의 과정과 의의는 물론, 수행의 흐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나 꼭 잊지 말아야 할 점 등을 꼼꼼히 지적한다.

불교 근본 교설과 사띠빠타나 위빠사나

이 책서 눈여겨 볼 부분 중 하나는 도덕성과 집중, 지혜, 즉 삼학(三學)의 관계가 체계화 된 점이다. 도덕적인 삶(戒)은 충동에 따른 행동을 억누른다. 그러나 무조건 억누르면 내부 충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역효과를 낸다. 이때 우리는 집중을 통해 마음을 돌림으로써 강박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김주일 기자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

親友書 친우서

용수보살 지음
수다지 캔뽀 한역 및 강설
지엄 편역 / 신국판 양장
504쪽 / 값 25,000원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용수보살이 친구인 왕에게 경전의 요점과 수행의 비결을 게송으로 풀어 가르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윤회와 인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국판 / 200쪽 / 값 10,0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경전 중 가장 오래된,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박이오 역 / 신국판 양장 / 368쪽 / 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